



24일 인천 육권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한국 김준홍이 표적을 조준하고 있다. 결과는 금메달. /연합뉴스

## 순천 총잡이 김준홍 2관왕 '탕탕'

함평 장대규·화순 이용대도 금

전국체전 전남 대표인 김준홍(24·KB국민은행)이 사격 25m 속사권총 남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 2관왕에 올랐다.

〈관련기사 18면〉 김준홍은 24일 인천 육권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25m 속사권총 개인전에서 총 40발 가운데 30발을 적중시키며 중국 선수 3명을 따돌리고 아시아 최고의 저격수가 됐다.

앞서 열린 단체전에서도 김준홍은 함평 출신의 장대규(38·KB국민은행), 송중호(24·국군체육부대)와 함께 1747점을 얻어 '맞수' 중국(1746점)을 1점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대규는 함평 월야초·중, 목포기계공고, 동신대를 나온 전남 토박이다.

사격 여자 50m 소총 복사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나윤경(32·우리은행), 정미라(27·화성시청), 음빛나(23·국군체육부대)로 구성된 사격 여자 대표팀은 여자 50m 소총 복사 단체전에서 1855.5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0년 광주우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목격했다.

화순 출신 '윙크보이' 이용대(26·삼성전기)는 아시안게임 삼수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용대는 23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복식 파트너 유연성(28·국군체육부대)과 한국의 2복식 주자로 나서 중국의 장난-쉬천을 2-0으로 완파해 한국의 '금빛 스매싱'에 박차를 가했다.

조정 김예지(20·포항시청)는 충주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싱글스킬 결선에서 8분46초5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무산되나

박대통령 최대 대선공약 3년째 예산 반영 안돼... '한전부지 읊인' 현대차 지원도 불투명

광주의 미래가 걸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생사의 중대 기로에 섰다. 〈관련기사 3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까지 선정된 사업이지만 예산은커녕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이하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마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광주와 현대(기아)차 그룹을 1대1로 묶어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직후 현대차 그룹에서 10조5500억원을 한전부지 매입에 투입하는 등 신사업 건설에 집중하기로 하

면서 이마저도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은 물론 향후 정부와 현대차 그룹의 실질적인 지원까지 이끌어 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5년 정부 예산안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예산으로 632억원을 요청했으나,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가 걸린 중요 사업이다. 실제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지역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전체의 21%를

점유할 정도다. 특히 자동차 관련 사업체는 700여곳이 넘으며 종사자수만 4만여명에 이른다.

현재로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을 미루고 있다. 오는 10월 말 결정되는 기재부의 예타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다. 만약 통과된다면 예타용역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되며, 통과되면 오는 2016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된다. 이마저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절감 예산'만 배정됐다가 흐지부

지 될 가능성도 있다. MB정부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 공약 등이 공중분해됐다. 광주와 지역 정치권이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이 사업의 핵심 키를 쥔 현대차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현대차 그룹은 정부가 지난 2일 전국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1대1전담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광주와 현대차

그룹을 파트너로 묶은 이후 지난 18일 한전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았다. 현대차는 이곳에 신사업과 '한국판 아우토슈타트' 등을 만드는 등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우토슈타트'는 독일 폴크스벤그룹 본사이자 출고센터, 박물관, 브랜드 전시관 등을 연계해 연간 250

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하고 함께 장기적으로 '자동차 도시'를 구상하면서 벤처마케팅 설립하기로 한 사실들이다. 결과적으로 광주와 파트너로 묶인 현대차그룹이 광주를 돕기는커녕 광주시의 미래 계획 시달물인 '한국판 아우토슈타트'를 가로챈 셈이 된 것이다.

반면 대구시와 파트너로 묶인 삼성은 지난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를 섬유와 자동차 부품 중심지로 키워내겠다며 대구시와 관련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등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좌초된 '사파리 아일랜드'

도, 신안 도초에 조성 계획

민자유치 어려워 결국 포기

신안군 도초도에 야생동물의 섬인 '사파리아일랜드'를 조성하는 전남도의 사업이 사실상 중지됐다. 814억원의 민자유치가 선행 조건이었으나 접근성 불리 등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F1 대회에 이어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역점사업들이 민선 6기 재검토 과정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23일 오후 도청에서 '도초도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섬에 동물을 키우는 사업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국과 신안군, 도의회, 전남발전연구원, 관광업계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다만 전남도가 67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부지 77만9000㎡는 성급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장

기적인 관점에서 취약지구 정비, 나무 식재, 영상콘텐츠 제공 등 섬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억원의 예산으로 '도초도 사파리아일랜드관광단지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각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 사업의 불확실성, 접근성 불리 등으로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또, AI... 토착화 우려 커진다

'중식선언' 20일 만에

영양 오리 1200마리 폐사

전남에서 지난 7월22일 이후 두 달여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하며 사실상 '중식선언'을 한 지 20일 만의 일이며 AI가 토착화돼 사계절 발생할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영암군 도포면 김모씨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날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H5) AI가 검출됐다. 김씨의 농장에서는 23일부터 일부 오리가 청색증과 함께 신경계 이상 증세를 보이며 12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전남도는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진 판정을 의뢰했으며 오는 29일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의정부 306보충대 연내 폐지 ▶6면

'리더스아카데미' 김병완 대표 ▶22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언하고 나선 뒤로 중국으로 가는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 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도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애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